

헬러윈 참사 유가족 “진상 규명 위해 끝까지 가겠다”

광주·전남 유가족 첫 기자회견
정부 진상조사에 답답함 토로
“유가족 소통 위해 명단 공개를”



헬러윈 참사 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 유가족들이 1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10·29 헬러윈 참사’ 피해자인 광주·전남 유가족이 처음으로 공식석상에서 입을 열었다. 유가족들은 성과 없이 지연되는 정부의 조사에 대해 답답함을 표하면서 지역민들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조심스레 꺼냈다.

정부에게는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에 피해자 유가족의 참여와 피해자 유가족들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헬러윈 참사 유가족 명단’을 유가족들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광주·전남지부’는 11일 오후 광주시 동구 전일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로 인해 아픔을 치유받지 못한 광주·전남 유가족들을 ‘동료시민’ ‘같은 이웃’으로 많은 관심과 위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광주·전남지부 피해자 유가족은 10가족이었지만, 지난해 연말까지 서로를 알 수 없어 연락을 하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알음알음 알게 돼 지난해 12월 25일께 처음으로 광주·전남 피해자 유가족 단체장을 만들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10가족 중 연락이 닿은 9가족은 1월 초 한자리에 모여 협의회를 결성했고, 시민단체에 요청해 11일 공개적으로 입장발표를 나선 것이다.

유가족들은 정부의 진상조사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들은 “국가는 아무런 안전 대비를 하지 않았고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아 159명의 희생자가 발생했다”며 “그 많은 사람이 희생될 동안 국가는 어디

에 있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후에도 형식적인 수사를 하고 국정조사에서는 위증과 책임 회피를 하고 있다”며 “이것이 현재까지 유가족이 받은 국가 지원”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유가족들은 “정부에게 유가족 명단이나 유가족 협의회 대표번호를 요구했지만 아직 연락받은 유족은 없다”면서 “이런 상황에 유가족은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광주와 전라도에 있는 유가족들을 찾아 함께 목소리를 내게 됐다. 유가족끼리는 서로 연락을 할 수 있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유로 전체공개가 안되더라

도 159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은 서로를 알고 있어야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정부에 요구사항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기자회견 이후 피해자의 친구들이 직접 써온 편지를 낭독하자 기자회견장은 눈물바다가 됐다.

한 친구는 “내 일부가던 네(피해자)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아. 내 인생에 와줘서 너무 고맙고 너는 나한테 행운이고 행복이야. 너는 내 10대이자 20대였어. 평생 사랑해”라며 눈물을 터뜨렸다.

유족 송진영씨는 “책임소재는 서울시장과 행안부 장관에게 있는데 특수부 중간수사 발표를 보면

아직도 용산구를 벗어나질 못했다”면서 “이 상태로 끝나게 된다면 참사는 반복될 수 밖에 없다”면서 “안락한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특검이든, 상설 조사위를 꾸리든 끝까지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가족들은 정부에게 ▲정부의 진정된 사과 ▲엄격하고 철저한 책임 규명 ▲진상 및 책임 규명에 유가족들의 참여보장 ▲참사 피해자의 소통 보장, 인도적 조치 등 적극적 지원 ▲희생자들에 대한 온전한 기억과 추모를 위한 적극적 조치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광주·전남 초교 예비소집 6명 불참... 일부는 외국에

올해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이 종료된 가운데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예비 초등학교생 6명이 예비소집에 불참해 교육 당국과 경찰이 소재 파악에 나섰다.

1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달부터 지난 5일까지 진행된 초등학교 예비소집에 광주 4명, 전남 2명이 불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예비 초등학교생은 1만3050명, 전남은 1만4257명이다.

광주에서는 초등학교 4곳에서 1명씩, 전남에서는 구례와 장성 각각 1곳에서 불참 학생이 나왔다.

교육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 불참 학생들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광주 4명은 모두 가족·학생 본인과 연락이 닿았으며, 이 중 3명은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 2명은 경찰을 통해 부모와 연결이 닿아 외국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학생과 직접 연락은 되지 않고 있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부모와 여행, 타지역 전학 등으로 예비소집에 불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연락이 됐다 하더라도 학생의 소재가 확실하게 파악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남학숙, 입사생 모집 2월 18일까지 160명

전남도립 전남학숙은 2023년 신규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160명(남자 104명, 여자 56명)이다.

신청은 2월 18일까지 전남학숙 누리집이나 전자우편, 팩스,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광주시와 인접 시군 소재 대학의 신입·재학생(대학원생 포함)과 대학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이 대상이다.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화순군에 있는 전남학숙은 2인 1실의 생활실과 독서실, 체력단련실, 멀티미디어실, 세탁실, 운동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월 11만원의 생활비로 1일 3식의 식사와 1일 9회 운행하는 통학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외 견학 등 다양한 장학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학숙(061-370-6200)과 누리집(www.jnhs.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강제징용 피해자 측 “정부 토론회 불참”

“발제문 미제공 상식 밖”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이 일제 강제징용 해법을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 공개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시민모임 뿐 아니라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와 대리인 모두가 참석을 보이콧하면서 해법 마련을 위한 이번 토론회는 반쪽 짜리로 개최 될 전망이다.

공개 토론회가 열리는 12일 오전 9시 국회 앞에서 진행하기로 한 ‘비상시국선언’은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시민모임은 11일 성명을 내고 “12일 국회 대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인 ‘강제징용 해법 논의’를 위한 공개토론회’에 불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10일까지만 해도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입장이었지만 “피해자를 둘러싸고 생각하는 정부 태도에 불참하기로 입장을 번복한 것”이라는 게 시민모임

의 설명이다.

단체는 “공동 주최측이 알려진 것과 달리 ‘한일의원연맹’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으로 뒤바뀐 점, 피해자측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조차 제공받지 못한 점으로 볼때 피해자들은 참석해 ‘듣기만 하라’는 말이다”면서 “아무리 요식 행위라고 해도 당사자인 피해자측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무시를 넘어 무례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단체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소통, 안하무인 태도는 일방적으로 답을 정해 놓은 채 구색을 맞추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비상시국선언에는 전국 950여개 단체와 3073명의 시민의 뜻을 담았다”면서 “일본 가해기업의 사죄와 배상이 빠진 채 한국 기업들의 기부금만으로 판결금을 대신해 지급하겠다는 정부의 굴욕적인 해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새들의 무덤’ 투명 방음벽·유리벽

광주서 지난해 투명 벽에 부딪혀 죽은 새 2600마리 ‘전국 최다’

지난해 광주에서 투명 방음벽이나 유리창 등 인공 구조물에 충돌해 죽은 새가 2600여마리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동물권단체인 ‘성난비건’은 “지난해 광주에서 건물 유리창이나 투명 방음벽, 유리로 된 버스정류장 등에 충돌해 죽은 새가 2626건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2020년 국립생태원이 집계한 200마리와 비교해 1년 사이 13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가 2200여 마리, 전남이 1700여 마리로 뒤를 이었다.

광주에서 새들이 가장 많이 충돌한 장소는 방음벽으로 전체의 83%인 2181건에 달했다. 이어 건물 유리창 306건(12%), 기타 구조물 138건(5%) 순이다. 방음벽은 주변에 심어진 나무나 관목 등으로 사람의 접근이 어려워 새의 사체나 그 흔적이 비교적 오래 남아 많이 관찰됐다는 게

단체의 분석이다.

충돌로 죽은 새들의 종을 보면 멧비둘기가 268건으로 가장 많았고, 직박구리 165건, 집비둘기 110건, 되짚구리 108건, 물까치 89건 등이었다. 이 중 천연기념물인 새매, 참매, 소쩍새, 팔색조 등 7종의 법정 보호종 피해도 16건이나 집계됐다. 물총새 27건, 곤줄박이 8건, 큰오색 딱따구리 5건, 꼬꼬리 2건, 황로 1건 등 ‘광주시 지정 보호 야생동물’ 목록에 포함된 조류 피해도 43건 이었다.

희복 성난비건 활동가는 “전체 건축물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민간 건축물에 충돌방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새들의 충돌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면서 “민간사업자가 인공구조물을 설계 및 시공하는 단계에서 야생조류의 충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규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2023년
3.22 ~ 4.19
묘이장 윤달
미리 준비하세요.
사전예약 필수!

- 윤달 이상 하실 분
- 별초, 묘지관리가 힘드신 분
- 선산을 한 곳으로 조성하고 싶으신 분
- 조상을 더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으신 분
- 자연장을 선호하시는 분

광주 전남
수목장 / 매장 / 봉안
이장전문업체

모이장/화장/평장/납골/자연장
정원장묘

062-412-6183

장묘 관련 모든 상담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